

대학생의 진로인식에 따른 진로 교육 요구도 차이 분석

An Analysis on the Educational Needs of the Career Education according to the Career Recognition of the Undergraduates

김현순, 김지호
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교양학부

Hyun-Soon Kim(khsbcr@dankook.ac.kr), Ji-Hyo Kim(jihyoKim@dankook.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인식이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진로인식 여부가 교육요구도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교 학생 362명에게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교육요구도는 경력개발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직업정보탐색, 경력전환기술,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진로계획 수립, 효과적 대인관계 형성 순이었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인식 여부는 역량 보유도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역량 필요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셋째, 두 집단의 교육요구도의 순위는 1위에서 3위까지는 동일했으나 4위부터 6위까지는 달랐다. 즉, 두 집단 모두 교육요구도 1위는 경력개발, 2위는 직업정보탐색, 3위는 경력전환기술로 동일하였으나, 그 뒤 순위는 진로인식 집단은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효과적 대인관계 형성, 경력전환기술 순임에 반해 진로 미인식 집단은 진로계획수립,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효과적 대인관계 형성 순이었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 진로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심어 : 진로인식 | 진로개발역량 | 교육요구도 | 보유도 | 필요도 | 보리치 계수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areer recognition upon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and educational needs. To achieve this, the survey was carried out and 362 undergraduates participated. The findings of the survey were shown as follows: First, the students perceived that career management was needed the most, and then came career information searches. Next, career transition technologies, positive self-concept formation, career planning, and effec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ere in order. Second, the influence of career recognition upon the level of the preparation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however, the influence of career recognition upon the level of the requirement did not reveal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Third, the rating of the educational needs was identical from the first place to the third, but different from the fourth to the sixth. These results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the efficiency of career education.

■ keyword : Career Recognition |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 Educational Needs | Present Competency Level | Required Competency Level | Borich Calculation |

I. 서론

대학 진로교육이 주목 받기 시작한 것은 청년층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이다[1]. 만성적인 경기 저성장으로 청년실업률이 증가하자 정부는 대학 평가 지표에 취업률을 포함시켰고, 대학당국은 대학생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개발 및 취업 지원 기능 확대를 위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 진로교과목의 핵심내용은 구직 기술 향상 및 취업전략에만 편중되어 있어 사실상 저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대학생활과 진로를 개발하기 위한 지식, 기술, 태도, 습관을 함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2]. 더구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 수요자의 수준과 기대에 맞게 내용과 과정이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진로교육의 내용은 직접적인 교육 수요자인 대학생의 교육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없이 개설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3]. 따라서 대학의 진로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생이 원하는 진로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육요구도(educational needs) 분석은 교육과정의 목적과 목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 현재 상태(what it is)와 희망하는 상태(what should be) 간의 차이를 구하고 문제점을 찾아 최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할 때 필요한 과정이다[4]. 교육요구도 분석은 현재 상태에 대한 인식을 통해 진로교육의 시발점을 알려주며, 희망하는 상태에 대한 인식을 통해 진로교육의 목표점을 설정할 수 있게 하고, 이 둘 간의 간극을 분석함으로써 진로 교육요구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집단 간의 교육요구도 분석은 집단의 요구를 이해하고 그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을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교육 내용과 대상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5][6].

최근 중·고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학생들은 대학입학 전에 일정수준의 진로교육을 받게 되었다. 대학 진학 전에 진로교육의 경험을 지닌 학생들에게 현재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진로교육

의 내용은 중·고등학교의 교육내용과의 차별성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평균 수명의 증가와 더불어 전 생애에 걸친 진로발달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학 진로교육이 자기 이해부터 은퇴준비까지 전 생애에 걸친 진로발달의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역량을 기존의 일반적인 범주인 ‘자기이해’, ‘진로.직업 지식’, ‘합리적 의사결정’의 분류[7]에서 벗어나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요구되는 역량을 추가하여 ‘경력개발’, ‘진로계획수립’, ‘효과적인 대인관계형성’, ‘직업정보탐색’,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경력전환기술’ 등 총 6가지 역량으로 분류하였다.

진로교육의 목적은 진로개발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 활동이다[8].

진로개발역량(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은 자신에 대한 삶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그러한 선택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와 성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7][9]. 진로개발역량이 최근 청소년들에게 더욱 강조되는 이유는 삶에서 맞닥뜨리는 진로장벽과 장애를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저력’이 되고, 진로개발의 다양한 상황에서 ‘전이 가능한 능력’이기 때문이다[10].

대학생 시기에 진로개발역량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진로개발역량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높아지며[11],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할수록 진로개발역량이 높아지기 때문이다[12].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은 진로목표의 설정이나 자신이 설정한 진로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인이 행하는 다양한 준비활동을 의미한다[13-15].

진로준비행동은 전 생애에 걸친 발달과업이긴 하지만 대학생에게 특히 중요한데 이는 대학생 시기의 진로발달 과업은 잠정적인 직업 선호로부터 구체적인 직업 선호로 진로목표를 구체화하고 구체화된 직업선호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6].

그러므로 최근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여 진로개발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변인들이 탐색되고 있는데 그 중 자주 논의되고 있는 변인이 진로 결정이다.

선행연구들[17-22]은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은 서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진로결정수준이 확고할수록 진로준비행동에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진로결정수준이 낮을수록 제대로 된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로결정 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적절한 진로준비행동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며[17][18] 더구나 대부분의 진로결정은 3~4학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23], 이처럼 진로 결정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서 취업준비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그 시기와 양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진로준비행동의 시작 시기가 빠를수록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높고, 진로준비행동을 충분히 할수록 첫 직장 생활에서의 만족도가 높았다[24]. 반면 진로준비행동의 시작 시기가 늦어지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취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직무수행 시 어려움을 겪었다 [25].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이 가능한 빨리 그리고 충분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신입생 때부터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여 진로개발역량을 증진하는데 효과적인 변인으로 '대학생의 진로인식'을 설정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진로인식이란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 일의 가치와 진로 선택의 준거를 이해하고, 여러 직업에 관한 소양을 갖추는 것으로 직업관의 계발, 진로의 종류에 대한 이해 및 진로 계발에 필요한 지능, 학력, 지식 등의 능력과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개인이 진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심리적 구조인 가치관, 자아개념, 직업관, 진학관 등을 포함하는 의식 체계라고 할 수 있다 [26]. 대학생의 진로인식은 전공인식과 같은 개념으로 쓰일 수 있는데[26], 이는 전공인식이란 자신의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거나 사고하여 진로에 대해 선택하고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소양

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이다[27]. 전공인식은 본인들의 진로결정 및 계획, 직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쳐[28], 전공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학생이 진로발달 수준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29].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자신의 적성이나 가치관, 진로 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전공을 선택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전공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전공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여 정서적 불안이나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청년실업률은 졸업 후 취업 전망에 대한 부정적 기대를 하게 하는데 이는 학업 부진뿐 아니라 적절한 진로준비행동을 방해하여 대학생활 뿐 아니라 개인의 삶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 한 요인은 '졸업 후 진로'인 것으로 나타났다[30].

하지만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로 인식이 진로개발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인식이 진로개발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인식 여부가 교육 요구도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보유도와 필요도 및 교육요구도는 어떠한가? 둘째, 진로를 인식하고 있는 대학생 집단과 진로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대학생 집단 간에 진로개발역량의 보유도와 필요도 그리고 교육 요구도에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진로인식이 진로개발역량을 제고하는데 가지는 함의를 이해하고, 진로인식의 여부에 따른 집단 간의 서로 다른 교육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D대학교 재학생 362명이다. 이들의 배경정보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140명 (38.7%)이고 여학생은 222명(61.3%)이며, 1학년은 150명(41.4%), 2학년은 83명(22.9%), 3학년은 88명(24.3%), 4학년은 41명(11.3%)이었다. 대학별로는 외국어대학 82명 (22.7%), 공공인재대학 40명(11.0%), 사범대학 42명 (11.6%), 경상대학 34명(9.4%), 자연과학대학 35명 (9.7%), 융합과학대학 52명(14.4%), 생명자원과학대학 46명(12.7%), 예술대학 18명(5.0%), 스포츠과학대학 13명(3.6%)이었다.

‘졸업 후의 진로를 인식하고 있는 집단’학생은 228명 (62.9%)이고 ‘졸업 후의 진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 학생은 134명(37.1%)이었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진로개발역량의 필요도와 보유도를 측정하고 교육요구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개발한 ‘대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인식 조사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에 포함된 대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은 대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은 ‘경력개발’, ‘진로계획수립’, ‘효과적인 대인관계형성’, ‘직업정보탐색’,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경력전환기술’이다. 본 연구자는 대학생 진로개발역량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1][3][7][8][23][31]와 미국의 NCDG, 캐나다의 Blueprint에서 제시한 지침을 참고하여 대학생에게 적합한 진로개발역량개념을 정립하고 잠재적 구성 요인과 측정 항목을 구성하였다. 이어서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가 합의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고, D대학교 재학생 131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연구를 통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인타당도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31개의 항목을 선택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D대학 재학생 362명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각 역량별 신뢰도 계수(Cronbach' a)는 .834~.902이고, 최대우도 방법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직교회전(varimax)을 통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대학생의 진로인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 전공의 졸업 후 진로를 잘 알고 있다’라는 문항에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게 하였다.

표 1. 진로개발역량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내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경력개발	비교과활동계획	.648					
	취업준비방법론	.618					
	학습계획	.605					
	구직활동방법이해	.593					
	네트워크형성	.557					
	직업전환능력파악	.557					
	직업유지능력개발	.551					
지원시스템 활용	.548						
진로계획수립	의사결정결과예상		.640				
	진로결정과정이해		.623				
	고용조건순위		.594				
	고용기회평가		.586				
	의사결정기준설정		.569				
	가족발달 상태고려		.559				
진로인식	진로인식		.535				
	성역할이해		.511				
효과적인 대인관계형성	효과적 대인관계			.757			
	스트레스관리			.717			
	상황별의사소통			.670			
	감정생각표현			.668			
직업정보탐색	정보유용성평가				.686		
	직업정보수집				.651		
	다양한 탐색 방법활용				.615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직업역량파악				.567		
	긍정적 자아개념 효과					.787	
	긍정적 자아개념 유지					.689	
	개인 특성별 진로					.589	
경력전환기술	개인 특성					.501	
	직업전환필요						.750
	직업전환스트레스 관리						.674
	진로전환가능성 인식						.660
	고유값	4.143	3.882	2.837	2.490	2.416	2.303
	설명 분량	13.365	12.524	9.152	8.031	7.794	7.429
	누적 분량	13.365	25.889	35.041	43.072	50.866	58.295

3. 자료 분석

전체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보유도와 필요도 그리고 진로인식 집단과 진로 미인식 집단 간에 필요도와 보유도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기술통계치를 구하고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SPSS 23을 사용하였다. 대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교육 요

구도를 산출하기 위해 Borich 계수를 산출하였다. Borich 계수를 활용한 교육요구도 분석방법은 요구되는 상태와 현재 상태 간의 단순한 차이에 의해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 아닌 가중된 차이 값을 산출하여 요구도의 순위를 밝혀내는 방법이다. 따라서 Borich 계수를 이용한 교육요구도 분석은 비교할 차이 값이 근소하여 차이 값의 비교가 어려울 때 사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다[4][32][33].

III. 연구결과

1. 대학생의 교육요구도 분석

대학생들의 각 역량에 대한 필요도와 보유도 인식 그리고 교육요구도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대학생의 필요도, 보유도, 교육요구도

역량	필요도		보유도		요구도	
	M(SD)	순위	M(SD)	순위	계수	순위
경력개발	4.10(.68)	1	2.85(.73)	6	5.00	1
계획수립	3.75(.70)	6	3.16(.66)	3	2.13	5
대인관계	4.04(.90)	3	3.54(.71)	1	1.98	6
정보탐색	4.07(.75)	2	3.04(.74)	4	4.24	2
자아개념	4.02(.77)	4	3.41(.74)	2	2.33	4
경력전환	3.88(.84)	5	2.94(.81)	5	3.64	3

대학생들의 각 역량에 대한 필요도 인식을 비교해 보면 6개 역량 중 경력개발의 필요도 평균이 4.10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직업정보탐색, 효과적인 대인관계형성,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경력전환기술 그리고 진로계획수립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역량별 보유도 인식을 살펴보면 효과적인 대인관계형성의 평균이 3.5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진로계획수립, 직업정보탐색, 경력전환기술 그리고 경력개발 순 이었다. 이로서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역량의 필요도 순서와 보유도 순서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량에 대한 필요도와 보유도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모든 역량에서 필요도의 평균이 보유도의 평균보다 높

았는데 이는 필요도에 비해 보유도가 작다고 인식하는 것이므로 두 집단원 모두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역량별 교육요구도를 살펴보면 경력개발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직업정보탐색, 경력전환기술,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진로계획수립, 효과적 대인관계형성 순이었다.

2. 진로인식에 따른 교육요구도 차이 검증

2.1 집단 간 필요도 차이 검증

진로인식 여부에 따라 역량의 필요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3. 집단 간 필요도 차이 분석

역량	진로인식 집단		진로미인식집단		t
	M(SD)	순위	M(SD)	순위	
경력개발	4.12(.70)	1	4.06(.66)	1	.859
계획수립	3.76(.70)	6	3.73(.69)	6	.381
대인관계	4.06(.91)	3	3.99(.88)	3	.725
정보탐색	4.10(.77)	2	4.03(.72)	2	.812
자아개념	4.06(.76)	4	3.95(.77)	4	1.335
경력전환	3.90(.84)	5	3.84(.84)	5	.715

진로개발역량의 필요도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을 비교해 보면 모든 역량에서 진로인식 집단이 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역량의 필요도 순위에 대한 인식에서도 두 집단이 동일하여 진로인식의 여부는 진로개발역량의 필요도 인식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요도 인식 순위는 두 집단 모두 경력개발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직업정보탐색, 효과적인 대인관계형성,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경력전환기술 그리고 진로계획수립 순이었다.

2.2 집단 간 보유도 차이 검증

진로인식 여부에 따라 역량의 보유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4. 집단 간 보유도 차이 분석

역량	인식 집단		미인식 집단		t
	M(SD)	순위	M(SD)	순위	
경력개발	2.99(.68)	6	2.63(.75)	6	4.59***
계획수립	3.27(.62)	3	2.99(.70)	3	3.85***
대인관계	3.61(.69)	1	3.43(.73)	1	2.27*
정보탐색	3.17(.70)	4	2.83(.75)	4	4.33***
자아개념	3.51(.77)	2	3.23(.71)	2	3.51**
경력전환	3.03(.73)	5	2.80(.84)	5	2.64**

*p<.05, **p<.01, ***p<.001

진로개발역량의 보유도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을 비교해 보면 모든 역량에서 진로인식 집단이 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이로서 진로인식은 진로개발역량의 보유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역량의 필요도 순위에 대한 인식은 두 집단이 동일하여 효과적인 대인관계형성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진로계획수립, 직업정보탐색, 경력전환기술 그리고 경력개발 순으로 나타났다.

2.3 집단 간 교육요구도 차이 분석

진로인식 여부에 따라 진로개발역량의 교육요구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검증하기 위해 Borich 계수를 구하였다.

표 5. 교육요구도 차이 분석

역량	진로인식 집단		진로 미인식 집단	
	교육요구도	순위	교육요구도	순위
경력개발	4.55	1	5.78	1
계획수립	1.74	6	2.78	4
대인관계	1.83	5	2.33	6
정보탐색	3.74	2	5.11	2
자아개념	2.06	4	2.74	5
경력전환	3.47	3	3.95	3

교육요구도는 두 집단 모두 모든 역량에서 양수(+)의 값으로 나타났다. 양수의 값이 나타났다는 것은 필요도에 비해 보유도가 적다고 인식하는 것이므로 두 집단원 모두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집단의 Borich계수를 비교해 보면 모든 역량에서 진

로 미인식 집단의 Borich계수가 진로인식 집단의 Borich계수보다 커서 진로 미인식 집단의 교육요구도가 진로인식 집단 보다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로 인식여부는 진로개발역량의 교육요구도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 두 집단의 교육요구도의 순위는 1위에서 3위까지는 동일했으나 4위부터 6위까지는 달랐다. 즉, 두 집단 모두 교육요구도 1위는 경력개발, 2위는 직업정보탐색, 3위는 경력전환기술로 동일하였으나, 4위는 진로인식 집단이 긍정적 자아개념형성인데 반해 진로 미인식 집단은 진로계획수립이었으며, 5위는 진로인식 집단이 효과적 대인관계 형성인데 반해 진로 미인식 집단은 긍정적 자아개념형성이었으며, 6위는 진로인식 집단이 진로계획수립인데 반해 진로 미인식 집단은 효과적인 대인관계형성 이었다.

이로서 진로 인식은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교육요구 정도와 요구 순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인식이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인식 여부가 교육요구도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를 밝히는 것으로 이를 위해 D대학교 학생 362명에게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첫째, 대학생들의 역량별 필요도와 보유도 인식을 비교해 보면 모든 역량에서 필요도의 평균이 보유도의 평균보다 높아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개발은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게 보유한 능력으로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은 역량으로 나타났다. 직업정보탐색은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보유도에서는 4위여서 교육요구도 2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황매향 등의 연구[31]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보다는 진로 의사결정 및 진로역량개발에 맞

취지기를 바란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의 진로 교육은 중등학교 진로교육과의 차별성을 높이고, 대학생의 직업세계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단순한 자기 이해 및 진로정보 탐색에서 벗어나서 직접적인 진로준비행동인 경력개발과 진로정보탐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진로개발역량의 보유도에 대한 인식에서 진로인식 집단은 진로 미인식 집단에 비해 모든 역량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중요성을 더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이로서 진로인식은 진로개발역량의 보유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진로인식이 진로교육의 목적인 진로개발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변인이며 따라서 이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진로개발역량의 필요도에 대한 인식에서 진로인식 집단은 진로 미인식 집단에 비해 모든 역량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진로개발역량의 필요성을 더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다. 역량의 필요도 순위에 대한 인식에서도 두 집단이 동일하여 대학생의 진로인식의 여부는 진로개발역량의 필요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두 집단의 교육요구도의 순위는 1위에서 3위까지는 동일했으나 4위부터 6위까지는 달랐다. 즉, 두 집단 모두 교육요구도 1위는 경력개발, 2위는 직업정보탐색, 3위는 경력전환기술로 동일하였으나, 그 뒤 순위는 진로인식 집단은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효과적 대인관계 형성, 계획수립기술 순임에 반해 진로 미인식 집단은 진로계획수립,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효과적 대인관계 형성 순이었다.

이는 진로인식 집단에게는 긍정적 자아개념형성을 형성하고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맺는 정서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역량을 증진시키는 교육이 더 요구되는 반면, 진로 미인식 집단에게는 진로계획수립에 필요한 의사결정과정의 이해나 기준과 같은 합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교육이 더 요구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로개발역량 증진을 위해 교육내용을 설계하거나 프로그램을 구성

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생의 진로인식 여부를 고려하여 두 집단에 서로 다른 교육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본인 전공의 졸업 후 진로를 인식한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진로개발역량의 모든 역량에서 더 많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학생들에게 전공에 관한 충실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진로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결과는 정정보건교육과 지역사회보건분야에서의 교육 요구도는 이미 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응답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응답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여준 박정민, 정원일의 연구[5]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교육을 통한 인식 증가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결과이다. 우리나라 대학생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장래문제이다[34].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자신의 적성, 흥미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민하지 않은 채 대학에 입학하므로 전공의 특성이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전공모호성으로 인해 전공부적응과 불만족을 경험하고 이는 학과의 전반적인 면학 분위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 개발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개인적, 사회적 손실을 유발한다[35].

대학생들에게 전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인 오리엔테이션은 대부분 대학 신입생 때 이루어진다. 만성적 불경기와 청년실업의 증가로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은 시작 시기가 빠를수록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높고, 진로준비행동을 충분히 할수록 첫 직장 생활에서의 만족도가 높았다[24]. 그러므로 신입생 때부터 가능한 진로인식 증진은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여 진로개발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효과적인 진로교육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인식 여부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이런 교육요구도 조사는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역량의 선택적 집중을 가능케 해 진로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진로교육 요구도에 대한 정보는 콘텐츠 개발의 목적

을 설정하고 내용을 구성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하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요구도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5][6][36].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교육요구도 분석을 넘어 집단 차에 따른 교육요구도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집단 차이를 이해하고 집단의 요구에 보다 부합하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진로교육의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해 D대학의 학생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표본을 구성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대표성 있는 표본을 통한 후속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인식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 관한 안정적인 연구 결과가 도출되기 바란다.

참고 문헌

- [1] 박가열, “대학생 진로개발 역량을 위한 교육요구 분석,” 진로교육연구, 제22권, 제2호, pp.181-198, 2009.
- [2]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생의 직업지도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2010.
- [3] 김경화, “대학생의 진로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요구도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6호, pp.359-379, 2012.
- [4] 김진수, 최유현, 김수경, “공과 대학 교수들의 공학교육 연수실태와 교육요구 분석,” 공학교육연구, 제11권, 제2호, pp.50-64, 2008.
- [5] 박정민, 정원일, “대학생의 보건 교육 욕구도 및 정신건강보건교육,”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0호, pp.385-393, 2013.
- [6] 지윤정, 윤현서, “일부 해양경찰들의 구강보건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수준과 구강보건교육 요구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7호, pp.322-329, 2015.
- [7] 최인재, 김봉환, 황매향, 허은영, 조지혜,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IV: 청소년진로·직업 지표*(연구보고 09-R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 [8] 임언, *역량중심 교과통합 진로교육을 위한 탐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 [9] 최동선, *생애단계별 진로교육 지침개발 및 관련 법령 개정 방안 연구: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 [10] 임언, 정윤경, 최동선, 김나라, 장명희, 정연순, 장석민,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운영 모델 구축: 총괄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 [11] 최숙현,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태도 성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12] 류재윤, 이유경,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제9권, 제4호, pp.99-116, 2012.
- [13] 김봉환, 김계현,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9권, 제1호, pp.311-333, 1997.
- [14] R. B. Slaney, *The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In W. B. Walsh & S. H. Osipow(Eds.), *Career decision making*(pp. 33-7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8.
- [15] J. L. Winer, “The early history of the Career Decision Scal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40, pp.369-375, 1992.
- [16] Zunker, *Career services and counseling in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career counseling: A Holistic approach, 7th ed*, Thomson Brooks/Cole, 2006.
- [17] 황지영, 박재황,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직업교육연구, 제34권, 제5호, pp.73-101, 2015.
- [18] 박신영, 이동형, “진로결정수준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조절효과,” 직업교육연구, 제32권, 제1호, pp.23-38, 2013.
- [19] 박혜영, *대학생활적응도와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한국기술교육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20] 이재창, 박미진, 김진희,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상담에 대한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제20권, 제2호, pp.111-127, 2007.

[21] 장경문,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제6권, 제1호, pp.185-196, 2005.

[22] 하정, 홍지영,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수준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몰입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제14권, 제1호, pp.353-374, 2013.

[23] 이대용, 류동희, 김인환, 고태용, “한국대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제1권, 제2호, pp.41-68, 2011.

[24] 이승구, 이재경, “한국 대학생의 취업목표에 따른 취업준비행동 및 첫 직장 만족도 차이,” 진로교육연구, 제21권, 제3호, pp.1-25, 2008.

[25] 민혜리, “대학에서의 취업준비 과외학습의 유형과 비용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제13권, 제3호, pp.133-149, 2003.

[26] 홍성순, “패션전공 대학생의 전공인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Fashion Business, Vol.16, No.5, pp.39-56, 2012.

[27] 정성숙,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28] 김덕희, *진로탐색검사 결과 해석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인문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태도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29] 김광애, “여대생의 전공 인식도와 진로발달과의 관계,” 여성인적자원개발연구, 제9권, pp.157-165, 2007.

[30] 송혜원, *외식 조리 관련 전공 선택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경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31] 황매향, 손만익, 강혜영, “대학생 대상 진로탐색 교과목 운영의 효과,” 아시아교육연구, 제8권, 제1호, pp.71-91, 2007.

[32] 정진현, “실과에서의 디자인 교육과 교육요구도 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제21권, 제2호, pp.223-240, 2008.

[33] 양은하, 정재삼, “교수역량 증진을 위한 변화필요도 분석,” 교육공학연구, 제26권 제2호, pp.25-52, 2010.

[34] 황춘희,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고령친화건강정책학회지, 제4장, 제1호, pp.73-82, 2012.

[35] 하혜숙, *대학생의 학과(학부)만족과 학교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36] 박혜영, “항공관련학과 교과과정에 대한 교육요구도 비교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1호, pp.521-535, 2011.

저 자 소 개

김 현 순(Hyun-Soon Kim)

정희원



- 1985년 2월 : 서울대학교(가정학사)
- 1988년 2월 :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석사)
- 2008년 2월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교양학부 강의전담조교수

<관심분야> : 진로상담, 상담, 학교상담, 노인상담

김 지 효(Ji-Hyo Kim)

정희원



- 2014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교양학부 교육조교수

<관심분야> : 진단분류모형, 검사개발, 진로교육